

《철학과 굴뚝청소부》

## 주체적 주체철학

‘철학의 위기’라는 의식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철학서들이 꾸준히 출판되고 있어 다행스럽다. 그러나 대부분의 철학서가 아직도 주로 번역물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한국인의 저서는 자신의 독창적인 철학을 제시하기보다는 외국철학의 소개이거나 아니면 대중적이고 교과서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경우가 흔치 않다. 더러는 기발하고 도전적인 제목으로 시선을 끌기도 하고 더러는 젊은 철학도들의 야심과 패기를 읽을 수 있는 책도 있지만 좀더 알고 보면, 틀에 박힌 생각들을 새롭게 포장한 머리 좋은 대학원 수준의 것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글\_박이문

작년 교보문고 인문 신간 코너에서 내 눈에 뜨인 《철학과 굴뚝청소부》라는 낯선 제목의 책을 거들떠보지 않았던 것은 바로 위와 같은 맥락에서다. ‘아! 또 하나의 건방진 대학원생과 출판사가 있구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반년이 지난 후 나는 같은 코너에서 다시 만난 그 책의 목차와 내용을 몇 군데 훑어보고 책을 구입했고, 집에 돌아와 곧장 훑어보고 “그게 아닌데! 가짜가 아니야!”라고 혼자 중얼거렸다. 다시 반년 후 이 책을 며칠에 걸쳐 힘들게 재독한 후 저자가 뛰어난 진짜 철학자라는 것을 확실하게 됐다. 이 같은 긍정적 인상은 저자가 원래 철학이 아니라 사회학을 전공했고 독학으로 철학을 공부한 젊은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더욱 굳어졌다.

## 데카르트에서 들뢰즈까지, 3세기를 관통하는 서양철학사

‘데카르트에서 들뢰즈까지 - 근대철학의 경계들’이라는 부제로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17세기에서 21세기 초반에 이르기까지 전개된 서양철학의 핵심적 문제들과 그에 대한 해결책의 모색 과정에 관한 서술이다. 이 책은 언뜻 보면 철학사이지 자신의 사유를 담은 활동으로서의 철학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저자는 데카르트, 스피노자, 로크 등 고전 철학자들과 소쉬르, 레비스트로스, 라캉 등과 같은 언어학자, 구조주의 인류학자, 포스트 정신분석학자 그리고 아주 서둘고 난해하지만 한국의 젊은 세대에 인기가 높은 알튀세르, 리오타르, 푸코, 들뢰즈를 간략하지만 신선하고 명료하게 정리해줌으로써 지난 3세기를 관통하는 서양철학의 중심 주제를 둘러싼 논쟁의 전개 과정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하나의 줄거리가 있는 철학사로서 이 책은 약 10년 전 한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대단한 베스트셀러였던 《소피의 세계》를 떠올리게 한다. 노르웨이 한 고등학교 교사이자 소설가인 요슈타인 가아더가 서양철학사를 주제로 쓴 아동소설 《소피의 세계》와 마찬가지로 이 책 역시 하나의 철학 동화처럼 읽힐 수 있다.

철학사가로서 저자의 뛰어난 솜씨는 철학뿐만 아니라 사회학, 미술, 영화, 문학, 언어학, 자연과학, 수학, 첨단 정보공학, 정치, 경제와 관련된 해박한 개념적, 역사적 지식 등을 통해 뒷받침되고 있다. 이러한 그의 서술적 솜씨를 접하면서 독자들은 철학사의 벽을 넘어 다양한 교양을 쌓을 기회를 갖는다. 이러한 점에서 이 책은 앞서 언급한 《소피의 세계》 못지않게 뛰어나고 또한 그 책에서 찾아볼 수 없는 다른 장점을 하나 더 갖고 있다. 《소피의 세계》가 보여준 철학사는 책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철학적 주제가 부재한 철학사인데 반해서 《철학과 굴뚝청소부》가 보여준 철학사는 명확한 주제를 가지고 있다. 저자는 근대 철학에서만 아니라 근대 이후의 모든 담론에서 보편적인 개념을 명확한 주제로 삼고 ‘주체’와 ‘진리’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근대철학 이후의 모든 철학적 담론을 서술, 검토 및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 모든 담론에 전제된 ‘주체’에 관한 주체적 철학

모든 역사적 서술이 그러하듯이 철학의 역사적 서술도 여러 시대나 지역에서 존재했던 독창적인 철학적 이론의 나열이나 그러한 것들의 개별적 해설 차원을 넘는 것이 쉽지 않다. 이진경의 철학사는 위와 같은 서술적, 정보적 기능을 나

름대로 충분히 해내면서도 그 차원을 넘어섰다. 독자는 이 책을 통해서 근대 이후의 서양사를 이해하고, 근대 이후 여러 가지 이름의 철학들을 시간적 및 공간적 축에서 자리매김하고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저자의 참된 의도는 근대철학사를 쓰는 데 있지 않고 그가 생각하고 주장하고자 하는 철학적 이론을 시도하기 위한 수단인 것으로 파악된다. 여기 나타난 저자의 의도는 철학사의 서술이 아니라 철학적 사유 그 자체이며, 그의 모습은 철학사를 전달하는 역사교수가 아니라 철학적 문제를 사유하고 그것을 풀고자하는 사유자, 자율적으로 사유하는 주체적 철학자이다. 이러한 철학자 이진경의 정체는 서양에서 근대철학 이후부터 오늘날 포스트모던 철학까지의 전개 과정을 설명하는 그의 입장과 방식에서 나타난다.

철학의 궁극적 목적이 영원히 변하지 않은 보편적 진리의 발견에 있다는 생각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일하다. 이런 점에서는 노자나 플라톤, 불교나 기독교도 전혀 다르지 않다. 철학의 기획을 위와 같이 규정할 때, 진리 발견 즉 인식의 주체, 개체의 정의, 진리의 규정과 잣대가 철학의 핵심적 문제로 부상한다.

이 책의 저자는 고대와 근대, 근대와 현대 즉 포스트·근대로 이르는 철학사를 신(神)이라는 초월적 주체에서 자연적 존재로서의 인간 의식 속에 내재한 이성적 주체로의 이동, 그러한 주체의 해체 역사로 파악한다. 그리고 계시적 인식론에서 합리적 인식으로 이동, 마침내는 고정된 대상 부재와 거기에 동반되는 진리의 증발, 인식의 근원적 상대성과 불확실성으로의 이전(移轉) 과정으로 본다. 이같은 철학사의 현대적 결과는 '주체의 부재' '인간의 죽음' '진리의 허구성' 그리

고 마침내는 '철학의 종말'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저자는 그가 진단한 서양철학 파산의 원인을 관념론적 형이상학, 인간중심적 세계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유를 해왔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넓은 뜻의 마르크스주의자답게 그는 오늘의 철학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 관념 외부로서의 육체적,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과학적 조건 등과 같은 물질적 조건들의 결정적 중요성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끊임없이 창조적으로 모든 문제를 새롭게 접근하고 풀어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몇 가지 구체적 대안들을 암시하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형식상으로는 지난 3세기 간의 유럽 중심의 철학사의 요약에 불과해 보이는 이 책은 내용적으로는 모든 담론에 전제된 '주체'에 관한 주체적 철학을 담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 책에 관해서 많은 문제와 허점을 지적하고 비평할 수 있다. 이진경의 철학이 완전히 독창적이라고 믿지 않는다. 그의 주장은 그가 다루는 여러 철학자들에 의해서 이미 주장되고 있다. 그럼에도 이 책의 중요한 의미는 저자가 주체적 철학자이며, 이 책이 주체적 관점에서 자신의 독특한 목소리를 들려주려고 애썼다는 데 있다. 저자의 주체성은 우리의 지성 속에 폐쇄된 민족주의로부터 해방된 정신적 독립, 자율적 이성, 실존적 진정성이 살아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

박이문님은 시몬스 대학 명예교수, 연세대 특별초빙교수로 강의하고 있다. 저서로는 《행복한 허무주의자의 열정》 《당신에게 철학이 있습니까?》 등의 철학서와 《나비의 꿈》 등의 시집이 있다.

《철학과 굴뚝청소부》  
이진경 지음 | 그린비 | 480쪽 | 값 14,900원

